

‘괴물 폭염’ 뜨거워지는 바다…우럭 25만 마리 ‘눈물의 방류’

해수부, 전남 해역 어류 집단 폐사 최소화…여수서 올해 첫 조치
해수면 온도 30도 육박…송어·넙치 등 양식 어가 고민도 깊어져

‘괴물 폭염’으로 연일 뜨거워지고 있는 전남 해역에서 어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한 올해 첫 긴급 방류 조치가 내려졌다.

전남해역에 지난해보다 보름 가량 빨리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양식어가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4개월여 키운 어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여수시 화정면의 양식어가 4곳에서 기르던 조피볼락(우럭) 25만7000마리를 바다에 방류했다.

올해 국내 첫 긴급 방류다. 특히 최근 5년 내 전남의 유일한 긴급 방류로 그만큼 올해 폭염에 대한 양식어가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긴급 방류는 고수온으로 바다 속 산소가 감소함에 따라 해상 양식장에서 기르던 어류 일부를 바다로 내보내 나머지 어류들의 원활한 호흡을 위한 조치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양식장 내 집단 폐사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7일부터 수요조사를 실시, 여수 돌산읍과 화정면 등 8개 어가로부터 조피볼락 61만 마리에 대해 방류 신청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23일부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어류를 대상으로 방류를 시작했다. 여수 뿐만 아니라 고흥, 신안 등 총 17개 어가, 133만 마리가 긴급 방류 대상이다.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취약한 대표 어종으로 꼽힌다. 수온이 28도에 달하면 폐사 가능성이 커지는 어종으로, 가장 많은 고수온 피해 어종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조피볼락은 3년간 2300만 마리에 달한 것으로 전남도는 집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5만 마리, 2023년 990만

마리, 2024년엔 1288만 마리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의 고수온 피해량은 2582만 마리로, 조피볼락은 50.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올해 고수온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평만과 신안 임자도·효지도 등 서해안과 도암·득량·여자·가막만, 울돌목(해남), 임회(진도), 고흥 거금도·여수 남면 안도 등 전남 연안에는 전년보다 15일 빠른 지난 7일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매일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온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남 해수면 온도는 최고 30도에 육박하고 있다. 서해 한평만은 24일 최고 기온 30.6도를 기록했다. 평균 온도는 28.9도로 전일보다 0.7도, 전년보다 0.8도, 평년보다는 무려 1.9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득량만은 평균 28.4도, 여지만은 평균 28.3도로 두 해역 모두 전일보다 상승했고, 지난해보다는 각각 0.7도, 1.5도 상승한 수치다.

전남바다 온도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양식 어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5년 간 단 한곳도 없었던 긴급 방류 신청 어가가 올해에만 지금까지 17개 어가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의 조피볼락 보상기준액은 1마리 당 600원으로 많지 않지만, 어가들은 집단 폐사로 모든 어류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긴급 방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피볼락 외에도 긴급 방류 대상 어종인 송어, 볼락, 넙치 양식어가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 화태면의 한 양식장 운영자는 “올해 긴급 방류 보상액이 지난해보다 5.5% 상승했지만, 그렇다고 4개월 간 키운 자식같은 어류를 바다에 내보내는 결심은 쉽지 않다”며 “특히 긴급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절차’에 정부 재량 확대

‘윤석열 1호 거부권’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으며,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제’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 12월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하나다.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4법 중 농안법에 대해서는 2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 관세협상 위해 1천억달러+α 투자 보따리 푼다

대표단, 10대 그룹 의견 취합
한미 고위급 2+2 협상 준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곧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순수한 투자 계획을 모은 것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러한 금액을 담은 한국의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2 협상’은 미국 스킷 베스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취소됐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등 10대 그룹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 가량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만찬을 하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또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

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달러+α’는 일본 투자 금액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또 이는 기업들의 순수 투자계획이라 정부 조달 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서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